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2호, 2009년 12월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5 No.2, 159-165, December, 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 진 주[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이론과 연계된 실무를 중요시하는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위해 간호중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환자의 질적 간호 요구와 간호사고 위험으로 인한 현장실습의 제한성으로 70% 이상의 학생들이 활력징후와 관찰 등의 비침습적인 기본간호위주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고(조미혜, 권인수, 2007), 졸업 후 신규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이정희, 성영희, 정연이, 김정숙, 1998).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Barrett & Myrick, 1998)이다. 김미원(2006)은 졸업 후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간호능력으로 기본간호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전문직으로서 법적 윤리적 실무, 교육능력, 전문직 발전 태도 및 실천 능력, 자료수집능력, 지도력과 관리능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졸업 후 핵심 간호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확인하고 임상실습교육에 반영하며, 실습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및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병동 수간호사, 프리셉터 및 실습지도 교수들의 지도역량이 간호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것 뿐 아니라(Jerlock, Falk, & Severinsson, 2003),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양진주, 2004; 이규은, 하나선, 김숙영, 2000),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실습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간호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주 2000; 최귀윤, 2009).

이러한 실습환경적인 요인 이외에도,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중에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 성찰 과정, 문제해결 과정, 간호 기술 등의 핵심적인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귀납적이나 연역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Jerlock et al., 2003).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환자간호결과를 학습하는 경험을 연결시켜(Riley-Doucet, 2008), 학습에 대한 혼돈과 좌절 및 불만족 등을 없애줄 수 있다(Lunyk-Child et al., 2001).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임상수행능력을 키워 간호전문직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에 스스로 학습과 탐구의 방법을 배우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과 전문가의 사고를 학습하도록 해야 하며(Holaday & Buckley, 2008), 현장 사례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실무 경험을 타당화시키고, 사례와 관련된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시켜야 한다.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e-learning(소향숙 등, 2008), 동영상을 통한 실습 오리엔테이션(이여진, 2008), 웹

주요어 : 간호학생,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 본 논문은 2008년도 광주보건대학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광주보건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yangjj@ghc.ac.kr)
투고일: 2009년 5월 14일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26일

기반 인공호흡기 실무학습(양진주, 2006)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임상현장에서 제한적인 교수들의 실습지도를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임상실습 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는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하게 선택한 간호계획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신경림, 하중영, 김건희, 2005; 양진주, 2008).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간호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실습환경에서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과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2005년도 한국간호평가원은 실습을 포함한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평가에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권장영역 항목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정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와 영역별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용어 정의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생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다양한 임상장소에 따라 어떻게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를 의미한다(이원희 등, 1990). 본 연구에서는 양진주와 박미영(2004)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인적 성향이다(Facione & Facione, 1992). 본 연구에서는 Facione과 Facione(1992)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중에서 황지원(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및 실습평가 측면에서 대상자의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조결자, 강현숙, 1984), 본 연구에서는 조결자와 강현숙(1984)가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자원을 선택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수행하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의 과정이다(Slusarski, 1994).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유귀옥, 1997에 인용)의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유귀옥(1997)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양진주와 박미영(2004)이 간호학생에게 적용하여 신뢰도를 확인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개 3년제 간호과에 재학중인 2007년도와 2008년도 2학년 학생 전체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임상수행능력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한 도구와 김분한 등(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임상수행능력을 근거로 양진주와 박미영(2004)이 예비문항을 구성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한 5점 척도의 총 19문항으로 간호학생의 간호과정 능력 영역 4문항, 직접간호중재 수행 능력 영역 4문항, 사회심리적 간호 능력 영역 3문항, 환자교육 능력 영역 3문항, 기본간호 수행 능력 영역 3문항, 신체사정 및 환자 모니터링 능력 영역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진주와 박미영(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90이었다.

● 임상실습만족도

조결자와 강현숙(1984)이 개발한 도구로서 임상실습 내용, 지도, 환경, 시간, 평가에 관한 5점 척도의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진주(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6이었다.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Facione과 Facione(1992)이 개발한 75문항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한국어 버전을 황지원(1998)이 진실추구, 편견없음, 분석, 체계성, 비판적 사고와 자신감, 호기심 및 성숙을 포함한 6점 척도의 50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를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에게 적용한 황선영(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 자기주도적 학습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측정도구는 Guglielmino (유귀옥, 1997에 인용)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를 토대로 유귀옥(1997)이 번안하고 수정한 32개 문항을 양진주와 박미영(2004)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하여 전체문항과 상관관계가 0.3 이하인 7개의 문항을 제외시켜 수정한 5점 척도의 25문항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양진주와 박미영(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9이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지 배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의 2학년 1학기 임상실습을 종료한 후 2007년 6월 18일과 2008년 6월 25일에 각각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3년제 일 대학의 첫 임상실습을 마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이므로 타 대학의 간호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제한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간호사가 53.0%로 과반수 이상 이었고, 환자나 보호자(19.1%), 의사(16.4), 타직원(8.7)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에 대한 적응은 '대체로 적응하고 있다'가 76.0%, '잘 적응하고 있다'가 16.4% 정도였고, '적응하지 못했다'가 7.7%였다 <Table 1>.

대상자의 전공 적응도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임상수행능력(F= 4.956, p= .008), 임상실습만족도(F=5.743, p= .00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F=3.09, p= .048)이 가장 높게 나타냈다. 또한 이들 변수의 사후 검정 결과,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과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군에서 임상수행능력(p= .035)과 임상실습만족도(p= .023)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3)

Variables	Criteria	Frequency (%)
Having a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during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periods	Nurses	97 (53.0)
	Patients or family	35 (19.1)
	Doctors	30 (16.4)
	Other staffs	16 (8.7)
	Others	3 (1.6)
	Nurse aides	2 (1.1)
Major adaptation	Well adapted	30 (16.4)
	Not well	139 (76.0)
	Not adapted	14 (7.7)

<Table 2>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ccording to major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N=183)

	≥ Well adapted [a] M±SD (n= 30)	Not well [b] M±SD (n= 139)	Not adapted [c] M±SD (n=14)	F	p	Scheffe	p
Clinical competence	65.47± 7.23	61.05± 7.64	59.71± 4.20	4.956	.008	a>b	.03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96.40±17.82	189.92±14.81	194.07±13.43	2.479	.087		
Self-directed learning	95.40±10.81	90.18± 9.91	91.57±14.42	3.09	.048	a>b	.084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86.57±11.16	80.13±10.05	78.07± 6.54	5.743	.004	a>b	.023

자기주도적 학습(p= .084)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정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총 평균 평점은 3.28로 나타났고, 이를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본간호 3.46, 사회심리적 간호 3.37, 환자교육 3.32, 간호과정 3.31, 신체사정 및 환자 모니터링 3.22, 직접간호중재 3.07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clinical competence by categories (N=183)

Variable (number of item)	Mean±SD (per item)
Basic nursing care (3)	3.46± .57
Psychosocial nursing (3)	3.37± .58
Education of patients (3)	3.32± .56
Nursing process (4)	3.31± .53
Monitoring and physical assessment of a patient (2)	3.22± .61
Direct nursing intervention (4)	3.07± .55
Total (19)	3.28± .43

임상수행능력 관련 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r= .554, p= .001), 비판적 사고성향(r= .366, p= .001) 및 자기주도적 학습(r= .278, p= .001)정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나타냈다<Table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0.480, 비판적 사고가 0.203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영향력은 .077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지 않았다.(F=33.863, p= .00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체계에 반영하는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7년도와 2008년도 각각 2학년 1학기에 주로 3차 교육병원에서 8주 동안 4개 내·외과 병동의 첫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총 평균 평점이 3.28로 중간정도를 상회하여 보통 이상의 수행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부영역 중 직접간호중재 영역은 진단검사와 간호, 상처간호, 투약, 임종간호 등을 포함하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임상실습 중에 병동별 현장실습지도자와 실습겸임교수에게 실습내용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실시하도록 지도받고, 임상실습전담교수와 전공과목 담당교수에게 순회 및 집담회를 통해 각각 1주에 4시간 이상씩을 지도받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실습기관들이 환자들의 질적 간호 요구로 인해 현장에서 간호학생이 직접 간호를 수행하지

<Table 4> The Relationships of clinical competence,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subjects (N=183)

Variable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p)		
Clinical competence	.554(<.001)	.366(<.001)	.278(<.001)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exper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clinical competence (N=183)

Clinical competence	B	SE	β	t	p	R^2	F	p
Constant	8.383	6.326		1.325	.187			
Self-directed learning	5.085	.044	.077	1.167	.245			
Satisfaction on clinical experience	.352	.046	.480	7.656	<.001	.362	33.863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9.956	.033	.203	3.034	.003			

못하게 하고 실제 관찰에만 그치도록 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시 직접 간호활동 수행이 적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비침습적 기본간호활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한 조미혜와 권인수(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환자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제한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활용 교육과 표준화 환자 교육 등을 통해 직접 간호중재를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내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신윤경, 허혜경, 박소미, 송희영, 김기연, 2007; 양진주, 2008; 이여진, 2009; 조미혜와 권인수, 2007).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영역 중 신체사정과 환자 모니터링은 비침습적인 과정으로 간호학생이 환자와 직접 대면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호활동이며 간호과정 사례연구에서 적절한 간호진단을 내리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임상실습 중 간호학생이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할 간호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수행능력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현장 실습지도자나 담당교수가 신체사정 및 모니터링 영역에서 직접 교육 및 시범 등의 임상지도를 강화하고, 환자의 활력징후, 침상 만들기 등의 기본적인 간호활동이외에도 전자의무기록(EMR) 또는 의무기록지 관련 교육, 진단검사 관찰 및 전·후 간호 수행 관찰, 투약간호 관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병동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간호학생들은 다양한 사례, 실습생 수, 병동분위기, 집담회 장소, 실습병동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의 구비 정도, 기구 및 비품의 적절성, 평가의 공정성 및 일일 실습시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실습환경과 임상실습 지도자에 대한 만족감이 실습의욕을 자극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집담회 장소 및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병동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허혜경 등(200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업무부담과 책임감, 동료와의 불편감, 수간호사의 지지체계 부족으로 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임상실습 지도자의 역할인식을 강화시키고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및 지지적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한 결과를 감안할 때 대학과 임상실습 교육기관이 실습지도자 역할 수행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지지적 풍토마련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도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영역 중 사회심리영역과 신체사정 및 환자 모니터링 영역은 간호학생이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탐구하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가장 높았던 군이 간호학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한 군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했다. 이는 실습 중에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훈련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오원옥, 2002)와 임상실습 시 시간의 제약 없이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격려하기위해 교수들의 자율학습 모듈 개발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Sparling, 2001; 양진주 2006; 소향숙, 2008)와 본 연구결과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과목에 대한 적응도는 대체로 적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적응하지 못한 경우는 7.7%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최귀윤, 2009)를 감안한다면 전공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성향과 학습유형을 파악하여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공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군이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군보다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및 실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공동체, 전공동아리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 시 간호사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간호행위를 관찰하고 지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 대상은 간호사로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속한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지 않는 관계로 실습협약을 통해 3차 교육병원에서 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간호사와의 대인관계에 더 어려움을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습병동에서 상시 접하면서 임상실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인이 간호사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명확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속병원 여부에 따라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병동의 지지적인 실습분위기와 간호사의 개별지도로 인해 실습하는 병동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고, 임상실습 환경이 좀 더 긍정적으로 느껴져 간호학생이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습 만족감이 더욱 커진다는 연구 결과(양진주, 2000; 최귀윤, 2009; Lewin, 2007)들을 감안할 때 대학과 실습기관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산학간담회를 통해 학생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자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G시의 일개 간호과의 2007년도와 2008년도 2학년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결과분석을 위해 SPSS 10.1 win programs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중 기본간호활동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사회심리적 간호, 환자 교육, 간호과정, 신체사정과 환자 모니터링, 직접간호 중재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β= .492)와 비판적 사고성향(β= .23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교육자들은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실무 상황에 잘 적응하여 간호전문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불확실하고 복잡한 임상실습현장에서부터 간호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진단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고, 효과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구축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임상실습교육 시 임상교수나 현장지도자들은 학생 스스로 사례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접 시범 및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임상지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 내에서는 환자 대상 임상실습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터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반복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4년제를 포함하여 표본수를 늘리고, 부속병원 여부에 따라 연구 변인의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김미원 (2006). 핵심간호능력 중심 간호학 실습교육목표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6*(2), 389-402.

김분한, 김소야자, 이정섭, 탁영란, 김희순, 최의순, 신경림, 최경숙, 김귀분, 김광주, 이소우, 김금순, 이숙자, 김윤희, 이경혜, 정영숙, 송지은, 박정호 (1998). 간호사 국가시험 방향설정을 위한 임상수행능력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아동간호학, 간호행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8*(4), 1075-1087.

소향숙, 배영숙, 김영옥, 김수미, 강희영, 최자윤, 양진주, 김남영, 고은, 황선영 (2008). 대학 간 통합 웹기반 중환자간호 실습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성인간호학회지, 20*(5), 778-790.

신경림, 하중영, 김건희 (200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비판적 사고 기술에 관한 종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5*(2), 382-389.

신윤경, 허혜경, 박소미, 송희영, 김기연 (2007).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실습평가 프로그램 개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1), 32-40.

양진주 (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가치관과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276-286.

양진주 (2006). 웹기반 인공호흡기 실무 멀티미디어 컨텐츠 학습이 간호학생의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6*(2), 231-239.

양진주 (2008). 간호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성인간호학회지, 20*(4), 548-560.

양진주, 박미영 (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4), 636-647.

오원옥 (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2.

유귀옥 (1997).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3), 327-335.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2000).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간호학회지, 30*(3), 571-583.

이여진 (2008). Blended learning을 이용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30-37.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3*, 17-29.

이정희, 성영희, 정연이, 김정숙 (1998).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간호활동시간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249-263.

조미혜, 권인수 (2007).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간호활동 경험 정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143-154.

조결자, 강현숙 (1984).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14*(2), 63-74.

황선영 (2003). *문제중심학습이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 비판적 사고력, 학습태도 및 동기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광주.

황지원 (1998).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에 관*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귀윤 (2009).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경에 관한 인식과 관련 변수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21*(1), 129-139.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 Adv Nurs, 27*(2), 364-371.

Facione, P. A., & Facione, N. C. (1992).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 Millbrae, CA: California Academic Press.

Holaday, S. D., & Buckley, K. M. (2008). Addressing challenges in nursing education through a clinical instruction model based on a hybrid, inquiry-based learning framework. *Nurs Educ Perspect, 29*(6), 353-358.

Jerlock, M., Falk, K., & Severinsson, E. (2003). Academic nursing education guidelines: Tool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urs Health Sci, 5,* 219-228.

Lewin, D. (2007).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for students nurses: Key indices from two studies compared over a 25 year period. *Nurse Educ Pract, 7*(4), 238-246.

Lunyk-Child, Crooks, D., Ellis, P. J., Ofosu, C., O'Mara, L., & Rideout, E. (2001). Self-directed learning: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J Nurs Educ, 40*(3), 116-123.

Riley-Doucet C. (2008). Self-directed learning tool for nurses who precept student nurses. *J Nurses Staff Dev, 24*(2), 7-14.

Slusarski, S. B. (1994). Enhancing self-direction in the adult learner: Instructional techniques for teachers and trainer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94*(64), 71-79.

Sparling, L. A. (2001). Enhancing the learning in self-directed learning modules. *J Nurses Staff Dev, 17*(4), 199-205.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Yang, Jin-Ju[1)]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inical competence an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for second year colleg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3 students by means of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ith clinical competenc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June 18th 2007 and June 25th 2008. **Results:**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er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more adaptable a student's major was, the higher the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score of self-directed learning was the highest in the well adapted group of a major. For clinical competence categories, the level of basic nursing was the highest followed by psychosocial nursing, patient education, nursing process, monitoring and patient physical assessment. The level of direct nursing care was the lowest among nursing students. **Conclusion:** In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nstruct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olleges and educational hospitals, intensifying preceptors' and professors' clinical instruction, and developing a multimedia learning module and practice using simulators or standardized patient care is necessary to promot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Jin-Ju*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683-3, Shinchang-dong, Gwangsan-gu, Gwangju 506-701, Korea
Tel: 82-62-958-7686 Fax: 82-62-958-7685 E-mail: Yangjj@ghc.ac.kr